

노동정책연구  
2022. 제22권 제4호 pp.181~187  
한국노동연구원

서 평

##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해체

###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동』

(유형근 지음, 산지니, 2022)

강민형\*

이 책은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의 대공장 노동자들, 특히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조직된 울산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 세계와 생활세계, 노동운동과 계급의식의 변화를 추적한다. 저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에 관한 20여 편의 논문을 출간하였고 최근 유럽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책을 번역한 노동 연구 전문가이다. 2012년 제출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변형: 울산지역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1987~2010』)과 이후 발표된 여러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책은 명료한 분석 틀에 입각하여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논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필자를 포함한 신진 연구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연구서라고 생각한다. 특히 계급 형성론과 비교-역사 사회학의 시각에서 자본축적, 노동시장, 노동자 문화와 정체성, 노동운동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이 책은 노사관계, 노동사회학, 노동사 전공자들의 필독서이자 노조 활동가, 기업의 노무관리자, 노동정책 담당 공무원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일독을 권하는 책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한국의 금속산업 노동운동에서 계급 연대가 쇠퇴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의 거점이었던 울산의 노동운동,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 박사(minhyoungkang@kli.re.kr)

이 중에서도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을 분석한다. 저자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울산의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투적 동원을 통한 임금 인상과 기업 복지의 확대에는 성공하였지만, 이러한 성과가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제4, 5장 참조). 오히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성공은 노동시장에서의 대기업 - 중소기업,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간 분절의 심화(pp. 184~190)와 기업 간 경계와 노동시장 내부자 - 외부자 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노동운동의 조직적 연대 형성의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강조한다(pp.106~109; pp. 355~379). 한때 전국 최강의 민주노조라 불렸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자 계급정당 및 산별 노조 건설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연대 활동을 조직하고 분단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노동운동에서의 “성공의 역설”은 2000년대 이후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리 조합주의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후반 노동시장 유연화에 직면하여 울산의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태도를 강화하였다(제8장 참조). 2000년대 이후 풍요로운 노동자이자 중산층이 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적, 정치적 성향을 저자는 “가족의 개별적 계층 상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전투적 집합 행동에 참여”하는 “도구적 집단주의(*instrumental collectivism*)”로 개념화한다(p.308; p.442). 즉, 한국의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적 폐쇄 혹은 기회 비축 전략을 통해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부품공급업체 노동자들을 배제하였고, 그 결과 2010년대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임금 및 생활 수준 격차가 “신분적 차이와도 같은” (p.309)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노동시장·작업장 노사관계와 더불어 대공장 노동자들의 생활세계와 문화적 성향을 주의 깊게 분석하면서, 연대 규범 약화의 원인을 대공장 산업 노동자의 문화 및 정체성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은 한국의 산업 노동자들의 노동 세계와 생활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한국 노동운동의 변화를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비교·역사

적 관점으로 설명한다는 데 있다. 저자는 카츠넬슨(Ira Katznelson)의 “네 가지 층위의 계급 형성” 개념을 분석 틀로 활용하면서도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를 한국의 산업도시인 울산, 특히 재벌 소유의 거대 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sup>1)</sup> 이를 통해 20세기 후반 자본주의 세계 경제 내 주요한 노동 수요의 진앙 중 하나였던 울산에서의 노동계급 형성과 변형에 대한 전략적 서사를 노동시장, 노동자 문화, 집단 저항 수준에서 구성한다.<sup>2)</sup> 이 점에서 이 책은 카츠넬슨의 분석 틀을 적극 수용하되 특정 도시가 아닌 특정 산업(자동차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21세기 초반 중국의 노동계급 형성을 분석한 장루의 질적 현장 연구와도 흥미로운 유사점을 보인다(Zhang, 2015).

특히 저자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첫 십 년 동안의 “결정적 국면”(pp.84~85)에서 형성된 대공장 노조 중심의 울산지역 노동운동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 불안정 노동자 운동의 성장을 제약하는 조직적 유산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울산지역 노동운동의 대공장-정규직 중심성은 산별노조운동 및 계급정당 운동의 약화 경향과 맞물려 “전투적 경제주의에 입각한 대기업 내부 임금 인상의 정치”의 강화라는 경로 의존성을 낳았다(pp.137~139). 특히 유럽의 노동계급 형성 경로와의 비교를 통해 저자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교섭의 집중화를 성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화와 파편화가 심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pp.451~462).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서유럽의 탈산업화는 동아시아의 산업화로 이어졌고, 한국 경제성장의 기적은 1980년대 후반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민주노조의 성장이라는 노동운동의 기적으로 이어졌다(구해근, 2002). 이 책은 이 시기 노조로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적 성향과 집단 저항 전략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2000년대 이후 한국 대공장 노동자들의 연대 지향적 전투적 노동운동은

1) 카츠넬슨(Katznelson, 1986: 14~21)은 계급 형성의 서로 다른 네 가지 층위로 ① 자본주의 경제 발전 및 자본축적의 구조, ② 노동자들의 생활방식과 노동 세계를 규정하는 노동시장과 작업장 조직, ③ 노동자 집단의 문화적 성향과 태도·의식, ④ 노동자들의 집단 저항과 노동운동을 구분하였다.

2) 이 책에서 저자는 구조 수준에서 울산의 노동계급이 지난 40여 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p.42)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나 대기업 생산방식의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울산에서 급격하게 진행된 자본의 집적·집중과 노동력의 프롤레타리아트화(proletarianization)가 현재까지 울산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기반을 형성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해체되었고 이들의 노동운동은 도구적 집단주의로 변형되었음을 주장한다.

이 책의 두 번째 장점은 방대한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계급 형성과 변형의 역사를 재구성하였다는 데 있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의 사회 운동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저항사건 분석을 이용하여 울산지역 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저항사건의 레퍼토리(repertoire), 표적(target),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제9장 참조). 이를 통해 대결적, 폭력적 저항의 감소,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 저항의 약화,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부상 등 울산지역 노동자 저항운동의 장기 동학을 규명하였다.<sup>3)</sup> 그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사회운동 연구 전반에서 저항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분석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이 연구는 “질적 자료의 양화를 통한(from words to numbers)” 노동운동에 관한 계량 자료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sup>4)</sup> 나아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설명은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이 생산한 공식, 비공식 문헌 자료와 더불어 노동자 구술 자료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저자는 2000년대 초·중반 채록된 1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울산 지역사 연구팀의 노동 구술사 자료와 2010년대 중반 진행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산업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사회적 고립,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가족의 생활세계와 경험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세 번째 장점은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규범적 모델을 제안하기보다는 한국 노동계급의 변형 혹은 해체가 발생한 원인을 인과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이념 공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예컨대, 한국의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귀족(labor aristocracy)”으로 변모하였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한국의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투적 경제주의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강조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주장한

3) 저자는 1987년 이후 30년 동안의 울산지역 노동자 저항사건의 빈도와 규모(p.390)를 설명하면서, 실버(Silver, 2003)의 논의를 활용하여 “맑스식 노동 소요”에서 “플라니식 노동 소요”의 전환으로 한국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를 설명한다.

4) 저항사건 분석을 활용한 한국의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로는 Kim(2016)을 참고할 것. 노동운동에 관한 역사 사회학 연구에서 저항사건 분석을 활용한 사례로는 Franzosi(2004), Silver(2003) 등을 참고할 것.

다(Kim, 2020).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귀족노조 담론이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능력주의적 편견”에 기반을 둔 “상징 폭력”이자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력 자원을 약화하는 담론으로 평가한다(p.449). 오히려 저자는 도구적 집단주의를 노동시장 유연화에 직면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과 적응을 위한 실용주의적 선택의 결과(pp.18~20, 259~264, 450)로 해석한다. 그리고 분권화된 교섭체계와 분절된 노동시장이라는 조건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 혹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계급 간 연대를 단시일 내 실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저자는 기존 연구에서 “전투적 경제주의”(조효래, 2005) 또는 “사회적 고립”(김동춘, 1995) 등으로 설명되었던 한국 대공장 노동자들의 도구적 집단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설명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 제조업 대공장에서 고성과 작업장 혹은 협조적 노사관계의 정착이 난관에 봉착한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고 난 독자들은 한국의 노동계급에 관한 다음의 두 가지 질문 혹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이 책은 울산의 노동계급 형성과 변형에 대한 설명에 있어 지역 노동운동과 진보적 시민사회 운동조직, 진보 정당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sup>5)</sup>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금속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계급적 산별 노조 건설과 더불어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정당 건설을 추진하였고, 2000년대 초·중반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도 하였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조직 과정에서 형성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내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정치적 역할에 기인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현장 조직을 만들고 활동가들 간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단위 사업장, 연맹, 산별노조, 민주노총의 선거에서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 경쟁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진보정치 조직 혹은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따라서 울산 대공장 노동자들의 정치의식과 계급 투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 거주지역의 인구생태학적 변동에 대한 분석(pp.230~238)과 더불어 지역 차원의 노동정치와 노동계급 정당의 역할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

5) 한국 노동계급 형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의 성공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평가하였다(김동춘, 1995; 구혜근, 2002).

와 관련하여 한국의 노동자 계급 정당 특히, 2000년대 민주노동당의 지역 차원의 노동정치가 노동시장 이중화의 약화 또는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분석하는 작업은 계급 형성과 연관된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주의와 작업장 노동정치의 동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초거대 기업으로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에서는 수만 명의 생산직 노동자들이 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의 공장(혹은 사업부)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지도부 선거나 현장 조직의 건설은 공장 혹은 사업부 간 활동가 연대체를 구성하는 초기업 간 연대 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벌 소유 대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공장 정규직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대공장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의 갈등, 나아가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운동에 대한 저자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으며, 정규직 - 비정규직, 전투파 - 온건파 사이의 “계급 내 투쟁” 역시 노동시장 분절 구조와 더불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였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과 비판은 저자의 인과적 논증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사, 노동운동, 계급 형성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제언에 가깝다. 위에서 언급한 쟁점들은 별도의 논문들을 통해 탐구해야 할 연구문제에 해당하며, 노동정치, 노조 민주주의 등의 주제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이 한 권의 책에서 모두 자세히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한국 금속산업 대공장 노동시장 - 노동자 문화/정체성 - 노동운동 등 계급 형성의 여러 수준을 넘나드는 치밀한 분석을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 책을 한국의 노동계급 형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뛰어넘는 걸작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들과 노동자 가족의 문화, 의식, 태도를 설명하고, 장기간에 걸친 노동자 저항사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동계급의 변형과 해체에 대한 인과적 분석과 정치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은 한국의 노동사, 노동운동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

었다. 자료의 포괄성, 주장의 독창성, 논증의 타당성 측면에서 저자가 보여준 연구자로서의 철저함과 성실성에 경의를 표한다.

## 참고문헌

- 김동춘(1995). 『한국 사회 노동자 연구』. 역사비평사.
- 구해근(2002). 『한국 노동 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 조효래(2005). 「대기업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정치」. 『산업노동연구』 11 (2) : 229 ~260.
- Franzosi, R.(2004). *From Words to Number : Narrative, Data, and Social Science*. New York,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tznelson I.(1986). “Working Class Formation : Constructing Cases and Comparisons.” In I. Katznelson & A. Zolberg (eds.) *Working-Class Formation : Nineteenth-Century Patterns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44.
- Kim, H.(2020). *Korean Skilled Workers : Toward a Labor Aristocracy*. Seattle, WA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Kim, S.(2016). *Democratization and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 Defiant Institutionalization*. London, UK : Routledge.
- Silver, B.(2003). *Forces of Labor : Workers’ Movements and Globalization Since 1870*. New York,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hang, L.(2015). *Inside China’s Automobile Factories : The Politics of Labor and Worker Resistance*. New York,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